회개냐 작전상 후퇴냐?

(눅15:1~10)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회개냐 작전상 후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작전상 후퇴냐? 아니면 진정한 회개냐.
구약에서 특히 선지자들이 선민들에게 회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선지자들의 요구를 듣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막대기로 쓰셔서 그 막대기로 선민들을 치심을 통하여 발생하는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서 위기 국면을 잘 넘기고 나면 또다시 죄악에 던져져 버리고 맙니다, 죄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회개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어진 환란들이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환란이 이기도록 지나가도록 또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약을 통해서 보여 지는 선민들의 회개의 모습은 '작전상 후퇴'라는 겁니다.

작전은 무슨 작전?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이 안정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 올 때면, 작전상으로 회개를 해서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된다, 그러면 또 죄악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이 회개라는 게 작전상 후퇴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작전상 후퇴, 왜 후퇴라 그럽니까?
그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동안 해 왔던 자기주장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작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 다음에 또 그 생활의 방식을 다시 이어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잃은 양이 찾아지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그리고 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잃은 양이 누구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잃은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 창녀를 주로 죄인이라고 일컬었는데, 이 세리와 창녀들만 회개해야 될 잃은 양입니까?
목자가 와서 찾아야 될 잃은 양입니까? 세리와 창기들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어떻습니까? 이들은 잃은 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요, 자기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잃은 양이에요.
유엔 사무총장님이신 반 기문 총장님은 회개해야 될 잃은 양입니까? 아닙니까?

이건희 씨는 잃은 양입니까? 아닙니까?

와~! 이건희 씨 같은 거물을 어떻게 잃은 양이라고 표현 할 수가 있느냐.

잃은 양, 조그만 양 같이 느껴지는데,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 오바마 대통령, 잃은 양이냐, 아니냐.

어우~ 이거 세계에서 가장 나라 슈퍼 초강대국인 미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잃은 양이라니.

잃은 양입니다 다 회개해야 될 잃은 양이에요.

노숙자도 잃은 양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반 기문 총장님도 잃은 양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지없습니다.

어떤 거물도 잃은 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땅히 잃은 양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잃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자, 목자가 있고 아흔아홉 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마리 양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비유에요.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사실을 비유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잃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목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잃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65억 전체가 다 잃은 양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6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자를, 아흔아홉 마리 남겨두고 한 마리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으셨고 또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런 거지요.

미국에서 범인이 한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BI가 나와 가지고 한국에서 그 범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이 있듯이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미국이 있다는 것도 Fact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Fact에요.
그 천국에서 잃어졌습니다, 65억 인구 전체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해 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잃어졌다는 거냐?
우리가 하늘에서 잃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그거 기억한번 해 볼까요? 삼층 구조.
'나'라고 하면,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3가지 차원의 세계가 겹쳐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공중이라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 몸은 이 땅이라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위 공중, 마음이 있는 공중 위에, 영이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과 영인 천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에게는 3가지 영역이 겹쳐져 있으면서 한 사람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있는 몸으로 우리 마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잃어버려진 것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하늘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 몸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왜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이 좋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아서, 그 아버지 옆에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올라갑니다.
그럼 왜 땅으로 지금 우리가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이 좋아서 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과 함께 있으려고 마음이 이 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음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이 땅을 이제는 떠나서 내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땅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병이 났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성수주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사업이 망했습니다, 아이고~ 십일조 떼어 먹었더니 사업을 망하게 하셨구나, 회개해야지.
그리고 십일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시 잘됩니다.
병이 났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라도 성수주일을 했더니, 아!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고,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를 않고, 이 땅에 내려와 있어서 이 땅이 좋아서 사는 게 죄인데, 회개가 뭐냐 하면, 땅이 좋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죄악을 반복하는 게 회개가 돼버렸습니다.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땅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려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멀쩡하게 죄악을 크게 지려고 회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아이쿠, 내가 병이 났구나!’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몸에 고통을 주신다고 느낀다 그러면, ‘아! 내가 마음이 몸에 붙어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 말든 이제는 그건 내가 더 이상 마음으로 붙잡지 말고…’
어제 우리 말했잖아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내 몸이 아프든 말든 간에 이 몸이 병원으로 가고 하기 전에 우선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몸에 붙어서 세상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이제는 몸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성수주일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
사업이 망하게 되면, ‘아! 내가 십일조를 안 냈으니까 사업이 망했으므로 십일조를 잘 내서 사

업이 잘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온통 사업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해서, 사업에 빠져 있었구나, 아! 이제는 이 사업이 망하던 흥하던 그건 아버지의 뜻에 맡겨두고, 내 마음은 이제 사업을 떠나서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니, 회개를 해 가지고 땅에서 또 다른 땅을 원하고, 또 다른 땅을 원한다 그러면, 이 뭔 이게 회개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작전상 후퇴이지요.
속은 빤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 요런 회개.
정말 이건 회개가 아닌 작전상 후퇴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게 회개라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이 없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보세요, 7절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한 이 한 사람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실 때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송합니다.
천사들이, '꼭~ 찾아오세요, 한 명이라도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몸까지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이러시면서, 찾으러 가시는 데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태산이라 이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천사들이.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하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아이고 내가 그곳에서 떠나서 살았구나, 그 곳에 있고 싶어 하지를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를 않고 이 땅에서 좋아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깜짝 놀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길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와~!' 하고 박수를 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이들이 죄를 볼 때는 분명히 이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온 자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볼 때는,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부터 마음이 이 땅으로 떨어져 나와, 이 땅에 묻혀 살고 있는 자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으로 볼 때는 죄인이 떨어져 나간 자로 본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갔냐 하면, 자기들 그룹으로부터.
자기들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로 보니까, 자기들 그룹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떨어져 나오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 버리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이라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 이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과 구분합니다.
재벌 2세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클럽에, 어쩌다가 재벌 2세와 사귀게 된 가난한 아가씨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곳에 있는 재벌 2세의 딸들이, 아래위를 훑어보고, 재벌2세 아들들이 놀이감으로 생각해서 와 가지고 장난 걸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죄인인 거지요.
이 세상이 정해 놓은 가치가 있는 자들이, 의인의 그룹에 속해 버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 죄인이 돼버려서 떨어져 나온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자들이 아닌데.

그런데 반면에, 이 창기와 세리들은 왜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걸 깨닫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 입지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만한 삶의 입지가 주어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하도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 땅에 있어봐야 죄인이라고 지탄을 받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주님께서 와서 알려주신 그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할 때에, 이 죄인 속에 바리새인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잃은 양의 그룹에서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잃어져 있으니까.
이거 우리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잃어져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유학 온 목적을 공부과정을 잘 열심히 해 갖고 잘 마치게 될 경우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한국에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부모님들이, 뭐 아는 친지들에게 또 독일에서 유학하던 학생이 친구에게 전하게 되면, 축하전화와 심지어는 돈까지 보내면서, 거기 독일에 있는 같은 유학생들 다 모아다가 잔치라도 벌여라, 뭐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독일에 있지만 속속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돼요. 누가? 애인이.
너무 오랜 세월을 독일에 있는 바람에, 애인이 연락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수소문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와 있고, 아빠의 마음도 와 있고 친구들의 마음도 와 있고, 삼촌의 마음도 와 있고, 할아버지 마음도 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합니다, '오늘 내가 노인회관에 나가 가지고 얼마나 너를 자랑했는지 모른다'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독일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애인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전화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든지, 선물을 전달하든지 물건을 전달하면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봐도 내 마음이 하늘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십니다.

그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좋아서 살고 있었던 것이, 더 좋고 실제로 더 좋고, 갖기만 하면 세상 것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그 하늘나라를, 까마득하게 잊고 아버지 계신 곳을 잊고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세상에 없던 길을 내신 겁니다, 인류역사 속에 없던 길을,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마음이,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요, 회개.

그렇게 하면 부활합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해 부활합니까?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잘 먹고 잘 살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 꼭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주님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날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면서,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 자리로 오셔서 삶을 살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좋을 것이 있을 것을 알아 가지고 찾아 헤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겠다는 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 작전상 후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일이 잘못 될 때에, 이 땅의 일을 본래의 안정된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속이기이고, 나 속이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과는 다른 것, 분명이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로 마음이 갈 수 있고, 마음이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고,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식의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일이나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라고 작전상 후퇴를 하고 있는 이런 회개는, 이제 우리의 생애에서 근절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안 될 때 깜짝 놀라 이 세상을 좀 더 잘되게 하려고 작전상 후퇴의 의미로 했던 회개가 근절되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마음이 완전히 가버리고 싶어 하는 그 참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